

‘자격’ 없는 광주 장애인·사회복지시설

23곳 중 사무원 둔 곳 없어...언어치료사 없는 곳도 6곳 복지시설 298곳 중 171곳 운영·회계·후원금·인권 ‘결격’

광주시 장애인 거주시설 상당수가 보건복지부가 제시하는 종사자 배치기준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 지역 사회복지시설도 매년 운영·회계·후원금·인권 부문에서 위반 사항이 적발되고 있는데도 시정되지 않고 있었다.

(국·남구3) 의원은 “광주지역 23개의 장애인 거주시설 중 보건복지부의 종사자 배치기준을 제대로 지키는 시설이 단 1곳도 없다”고 밝혔다. 장애인 30인 이상 시설에서는 사무원 1명이 필요하지만 배치하지 않았으며 중증·지체·지체·영유아 장애인들을 위한 물리치료사를 채용해야 하는 3곳도 인력

을 두지 않았다.

또 청각·언어·영유아 장애인들을 위해 시설당 1명씩 배치해야 하는 언어치료사가 없는 곳도 6곳에 달했다. 최소 2명씩 배치해야 하는 조리원을 1명도 채용하지 않았거나, 입소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간호사가 없는 시설도 있었다.

박 의원은 이들 시설 모두 광주시 지도·감독 대상이지만 지금까지 이에 대한 시정권고나 구체적인 지도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관내 298개 사회복지시설 중 171곳

이 각종 운영·회계·후원금·인권 부문에서 결격 처분을 받았다. 회계 및 후원금 부당 관리 120건, 부적절한 시설 운영 231건, 인권분야 4건 등이다.

박 의원은 인권 분야 적발 건수가 적은 것은 실제 조사를 담당할 직원들이 대부분 시설이나 회계전문가들로만 구성된 채대로 된 지도 점검을 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박 의원은 “그동안의 지도·감독보다 강력한 처벌 수준으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광록기자 kroh@



“심폐소생술 알아둬시다” 광주시 북구청 소속 공무원들이 6일 북구 용봉동 청사 광장에서 심폐소생술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심폐소생술 플래시몹’ 이벤트를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교육부 “광주교대 총장 후보 2인 모두 부적격”

내달 5일까지 재추천 요청...공주대·전주교대·방통대는 ‘적격’

교육부가 광주교육대 총장 후보자들에 대해 최종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현재 13개월째 총장 공석인 광주교대는 교육부 판단에 따라 총장 재추천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는 6일 교육공무원인사위원회를 열어 총장이 장기공석인 국립대학 4곳에 대한 기존 후보자 적격 여부를 재심의를 했다. 그 결과 공주대는 1순위 후보자인 김현규 교수가 적격 평가를 받았다.

전주교대는 1순위 후보자인 이용주 교수와 2순위 후보자인 김우영 교수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역시 1순위 류수노 교수와 2순위 김영구 교수가 모두 적격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광주교대의 경우 후보자 재추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광주교대는 기존에 대해 학이 추천한 후보 2명 모두 부적격이 아니라 고 판단됐다”며 “심사 내용에는 후보자 개

인의 신상정보 등도 포함돼 있어 부적격 사유를 따로 발표하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교육부는 광주교대에 총장 후보자 재추천을 요청하고, 공주대 등 3개 학교에는 적격 후보자 수용 여부를 다음 달 5일까지 결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광주교대는 교육부가 재추천을 요구함에 따라 현재 간선제인 총장 선출 규정을 손질하는 등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총장 선출규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논란도 예상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교육부의 광주교육대 총장 임용 거부는 두번째다. 광주교대는 지난 2016년 8월 ‘총장 임용 후보자 재추천 요청’ 공문을 교육부에 보내 총장 후보를 다시 추천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광주교대는 간선제 방식의 총장 선출 규정에 따라 지난 8월 11일 20명으로 구성된 총장임용추천위원들의 선거를 통해 제7대 총장 후보 2명을 교육부에 추천한 바 있다. 국립대 총장의 경우 추천위원회(간선제) 또는 직원들이 합의한 방식(직선제)을 바탕으로 2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하면 교육부 장관 제정을 거쳐 대통령이 임용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무안 악취 민원 2년새 52배 폭증

전남지역 평균 2배 늘어...올 발생 72%가 축산시설

전남지역 악취 민원이 2년새 2배 가까이 급증했다. 특히 무안군은 같은 기간 52배 폭증했다. 화순군과 영광군도 악취 민원이 10배 이상 늘었고, 나주시는 혁신도시 입주 이후 연간 200건이 넘는 악취 민

원이 발생하고 있다. 6일 전남도의회 우승희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이 전남도로부터 제출받은 ‘악취 민원 신고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도내 악취 민원 건수는 2015년 486건, 지

난해 781건, 읍들이 9월까지 907건을 기록했다. 이 추세로 연말이 되면 2015년 건수의 두배를 웃돌 것으로 예측된다. 특히 읍들이 악취배출시설의 신고로, 대부분 소규모 축산시설 민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신고가 69.1%로 더 많았다. 전남도는 악취 민원에 대해 최근 3년간 개선 10건, 조치 2건, 개선 권고 42건, 고발

2건, 과태료 4건 등 모두 60건 조치했다. 이 가운데는 2회 조치를 받은 업체가 7곳, 3회와 4회 조치 받은 업체도 각각 1곳 있었다. 나주시는 2015년 22건에서 지난해 211건으로 급증했고, 읍들이에서도 168건 신고돼 악취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반면 담양군은 2015년 27건에서 올해 9건, 장흥군은 24건에서 5건, 장성군은 47건에서 13건으로 크게 줄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59 | 해질 17:33 | 달돋이 20:30 | 달질 09:57

‘임동’에 내리는 비

남서쪽부터 비가 시작돼 오후부터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지역별 날씨 (°C)

광주	10/19	보성	가평	7/18	
목포	가평	12/19	순천	가평	11/19
여수	가평	13/19	영광	가평	9/19
나주	가평	8/19	진도	가평	14/19
완도	가평	13/19	전주	가평	9/19
구례	가평	7/18	군산	가평	9/18
강진	가평	9/19	남원	가평	6/18
해남	가평	8/19	속산도	가평	13/19
장성	가평	8/18			

◇바다 날씨

시해	앞바다	오전		오후	
		풍속	파고(m)	풍향	파고(m)
남부	면바다	동~남동	0.5~1.0	남동~남	0.5~1.0
남부	면바다	남동~남	0.5~1.0	남동~남	0.5~1.5
남부	면바다(동)	북동~동	0.5	동~남동	0.5~1.0
남부	면바다(서)	동~남동	0.5~1.5	남~남서	0.5~1.5
남부	면바다(서)	동~남동	0.5~1.5	동~남동	0.5~1.5

◇생활지수

산불위험	낮음
자외선	보통
미세먼지	보통

◇물때

목포	간조		만조	
	09:07	03:57	16:39	11:09
여수	간조		만조	
	09:07	03:57	16:39	11:09

◇주간 날씨

8(수)	9(목)	10(금)	11(토)	12(일)	13(월)	14(화)
☁	☀	☁	☀	☀	☀	☀
14/19	5/19	7/16	4/15	6/17	6/16	5/14

한샘 성폭행 논란 ‘일파만파’

재수사 청원 1만3천명...불매운동에 흡소포 방송 무기한 연기

한샘 여직원이 입사 직후 입사 동기와 선배 등으로부터 몰래카메라(몰카)와 성폭행, 성추행 등을 당했다고 주장,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6일 청와대 게시판에 보면 한샘 여직원 사내 성폭행 논란 사건 관련 청원은 총 18건이다. 이 가운데 ‘한샘 성폭행사건에 대해 올바른 수사를 요청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에는 이날 오후 2시 현재 1만3500여명이 서명했다. 한샘 성폭행 사건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지만 새로운 증거가 나오면 재수사를 할 수 있다. 한샘 제품에 대한 불매운동 목소리가 커지면서 흡소포 방송 연기도 잇따르고 있다. 한편 한샘 성폭행 사건은 여성 신입사원이 지난 3일 인터넷에 성폭행 피해를 호소하는 장문의 글을 올려 시작됐다. 해당 여성은 입사 동기로부터 화장실 몰래카메라를 찍혔고 이후 이 사건을 도와 주던 회사 교육담당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으며, 그 성폭행을 처리해주던 인사 담당으로부터 사건 무마 회유와 함께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가구 넘어짐’ 어린이 안전사고 주의

매년 30건 이상 영유아 44%...“벽에 단단히 고정 시켜야”

가구가 넘어져 6세 이하의 어린이가 다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3년 6개월(2014년 1월~2017년 6월) 동안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가구 전도(넘어짐)사고 사례는 총 129건으로 매년 30건 이상 발생했다”고 6일 밝혔다. 이 중 연령 확인이 가능한 117건을 분석했더니 6세 이하 영·유아 비중이 절반에 가까운 43.6%(51건)를 차지했다. 전도사고가 가장 자주 발생한 가구는 서랍장(45.7%, 59건)이었으며, 책장(27.1%, 35건), 옷장(14.7%, 19건), 신발장(7.0%, 9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소비자원은 어린이가 서랍에 매달리거나 서랍을 밟고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 서랍장 전도 위험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가구가 넘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가구를 벽에 단단히 고정·설치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이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2017년도 우수선수 선발 태권도대회

2018년도 국가대표 선수 선발 예선대회

2017. 11. 9(목) ~ 12(일) 전남 강진국민체육센터

| 주 최 | 대한태권도협회 KTA | 주 관 | 강진군체육회

| 후 원 | 강진군 GANGJIN CITY | 협찬사 | adidas 제우스스포츠

당일 경기일정은 협회 페이스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